

시·도지사 ‘공항 합의’... 무안에 쏠리는 ‘시선’

강기정·김영록 회동 후 과제

민간·군공항 무안 동시 이전 합의
지원금 선적립 등 ‘지원조례’ 제정
군공항 반대 동력 약화 조건 마련
무안군수 등 대화 참여 유도 시급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역 최대 현안인 광주 민간·군공항의 무안 통합 동시 이전이라는 대원칙에 합의하면서 세간의 시선은 이제 군공항 반대 기류가 거센 무안으로 쏠리고 있다.

‘의미있는 진전’ 등 일부 단서조항이 있지만, 시·도가 함께 무안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천명하면서 구도는 ‘광주·전남 vs 무안’으로 굳혀진 상태다. 무안 지역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만큼 군공항 이전지역 지원 약속 이행 노력과 주민 설득작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김 지사와 강 시장은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에 소재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시·도지사 회담’을 열고 지난 5월 회동에 비해 진전된 합의안을 도출했다.

5월엔 시·도 간 ‘갈등의 핵’인 민간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했지만, 이번엔 민간공항을 ‘KTX 무안공항역 개통 시기에 맞춰 이전하겠다’는 명확한 결론을 냈다.

민간공항 이전 외에도 △‘소음피해 대책 마련 토론회’ 개최 △무안군 수용성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 등의 당근책도 내놓았다. 여기에 ‘공항 활성화를 위한 공동회의 개최’를 제시했다.

시도지사 합의내용에 대해 무안으로서도 경색된 분위기를 풀 수 있는 조건이라는 평가다. 지난 2021년 이용섭 전 광주시장의 ‘광주 민간공항 무안 이전 합의 무효화 선언’ 후 얼어붙었던 민심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무안은

‘광주에 뒷통수를 맞았다’며 강력 반발했었다.

여기에 더해 광주는 이전 주변 지역 주민 지원사업비를 담보하기 위해 지원금 선적립을 포함한 ‘광주 군공항 유치지역 지원조례’를 제정기로 했다. 줄 것도 주고, 더 챙겨줄 것도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전남도가 광주시에 지속적으로 바라고 요구했던 안이기도 하다.

무안지역 분위기는 여전히 싸늘한 상태다. 무안 군공항 이전 반대 핵심 관계자는 “발표문에 있는 ‘의미있는 진전’이 과연 무엇인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조건을 넣어놨다는 것은 결국 군 공항을 가져가라는 것 아닌가”라며 “나아가 군공항 이전의 주체는 이전대상지 주민들인데 양 시도가 서로 합의하는 건 우스운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그렇다고 무안이 계속 거부 입장을 고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군공항 이전이 결정되면 전문학적인 액수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민간공항마저 빠르면 2025년 무안국제공항으로 오게 됐다. 지역 내 반대 동력이 약해질 수 있는 조건이다.

결국 남은 과제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시도지사의 합의안에 대한 신속한 이행 노력과 무안군과 주민 설득작업이다.

강 시장은 전날 회동 현장에서 “무안군정 책임자들과 적극 대화하고 설득하겠다”면서 “무안 역시 발전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고 발전해야 한다는 흐름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강 시장과 김 지사가 마주한 테이블에 김산 무안군수를 앉히는 것도 필요하다.

전남도 관계자는 “광주 민간·군공항의 무안 이전을 위해선 공론의 장에 무안군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을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면서 “무안군과의 3자 대화, 2자 대화를 지속해서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관련기사 2면

노병하 기자 byongha.no@jnilbo.com



강기정 광주시장과 조광철 코비코(주) 대표, 솔레이만 이브라힘 아이만 나이지리아 경찰부장관 등이 18일 광산구 평동산단 자동차 전문 생산업체 코비코(주) 본사에서 나이지리아 경찰청장 장갑차 수출 협약식을 갖고 장갑차를 살펴보고 있다. 나건호 기자

광주서 만든 장갑차, 아프리카 수출길 오른다

코비코, 나이지리아에 500억 계약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성과

광주지역 자동차 전문 생산업체인 코비코(주)가 자체 생산한 장갑차를 아프리카에 수출한다.

광주시는 지역 자동차 전문 생산업체인 코비코(주)가 나이지리아와 장갑차 100대 약 500억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축하하는 기념식이 이날 오전 평동산단 코비코(주)대회의실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솔레이만 이브라힘 아이만 나이지리아 경찰부장관, 압두아리 수아야우 라피아 나이지리아 경찰청 정보부 수장, 느온에 피디난드 주한 나이지리아 대사, 마지다디 발라 무아주 콘타고라 AGED

NETWORK 대표, 김영우 산벨오데나 대표, 조광철 코비코(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에 수출하는 차륜형 장갑차는 광주시가 역점으로 추진한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 기술개발(R&D)을 통해 개발한 차량이다. 특히 기업과 지자체가 협업을 통해 사업화에 성공한 사례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

코비코(주)는 이번 계약을 시작으로 앞으로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에 다수의 장갑차량을 순차적으로 수출·공급할 계획이어서 지역 군수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비코(주)는 광주에 본사를 포함 공장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종업원 300명 이상, 매출액 1850억원에 달한다. 기아·현대

차 1차 협력사로 특수목적차량, 군수차량 부품 생산, 차체조립 등을 주업으로 하는 광주를 대표하는 군수기업이다. 또 지난해 12월 ‘광주형일자리 선도기업’에 선정돼 적정임금,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개선 분야 인증을 받았으며, 노사상생을 지향하는 지역 대표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에 수출되는 장갑차(KMPV)는 광주시가 역점사업으로 두고 있는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통해 개발돼 더욱 뜻깊다”며 “광주시는 연 72만대 생산능력을 가진 대한민국의 제2의 자동차도시이고 코비코는 광주시가 지난해 선정한 광주형일자리 선도기업으로 노사상생과 기업경쟁력을 갖춘 만큼 나이지리아와 좋은 파트너로 함께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GOLDEN HILL

생명의 땅, 청정 전남에서 나고 자란 우수한 농수산물을 지구촌 곳곳에 알립니다.
골든힐은 수출에 관심 있는 전남소재 식품제조사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全南日報가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전문무역상사 지정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증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벤처기업확인서

(주)골든힐
전남 나주시 노안면 노안로 455-90 | T. 061.332.1998 F. 061.334.1997 | E. golden0311@naver.com